

디스플레이산업

OVERWEIGHT

단기 LCD Fab 가동률 전망

Analyst 김영우

02) 3787-2031
ywkim@hmcib.com

Jr. Analyst 김윤규

02) 3787-2302
leokim@hmcib.com

- 실종된 성수기 수요로 패널업체 가동률은 연말까지 하락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중국 국경절 및 글로벌 연말특수 수요는 제한적, 패널가격 하락세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
- 1분기까지 비수기에 대비한 보수적 트레이딩 전략 유효, LG디스플레이 감가상각연수 변경 기대

실종된 성수기 수요, 패널업체 가동률 연말까지 하락 불가피 전망

9~10월은 LCD 패널의 극성수기이다. 그러나 초저가 메리트를 제외한 TV수요의 확대는 찾아볼 수 없다. UHD LED TV와 FHD OLED TV는 초고가이기도 하고, 전체 판매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1% 수준에 불과하다. Curved FHD LED TV가 UHD LED TV보다 낮은 가격에 포지셔닝하고 있지만, 아직은 SONY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제품은 2014년이나 판매가 확대될 것이고, 올해는 저가 경쟁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패널업체들의 가동률은 연말까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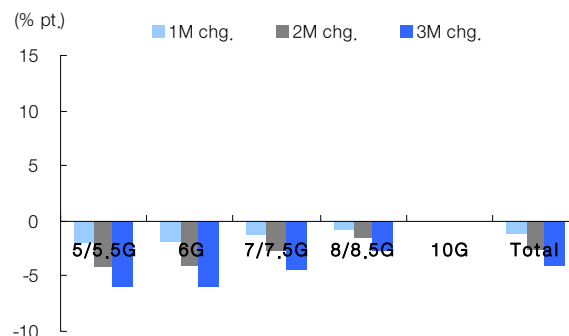
중국 국경절 및 연말특수 수요 모멘텀은 제한적, 패널가격 하락세 유지 예상

중국 국경절 수요 및 글로벌 연말특수는 양호한 수준일 것이지만, 이미 증가한 LCD 패널업체들의 공급능력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LCD 산업의 가동률은 하락이 예상된다. 가동률 하락의 강도가 높을수록 2014년까지 이어지는 재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Fab 가동률을 현재 대비 3~5% 수준 낮추지 않는다면 패널가격은 폭락의 위험성까지 나타나고 있다.

2014년 1분기까지 비수기에 대비한 보수적 트레이딩 전략 유효

기다리던 Apple의 iPhone은 이미 공개되었고, 10월에 출시될 iPad5까지 공개되고 나면 연말까지 LCD 산업에서 특별한 모멘텀을 찾아보기 힘들다. 1분기까지는 LCD 패널의 비수기가 이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Buy & Hold 보다는 Trading 전략이 유효하다. LG디스플레이의 경우, 2014년에는 감가상각 연수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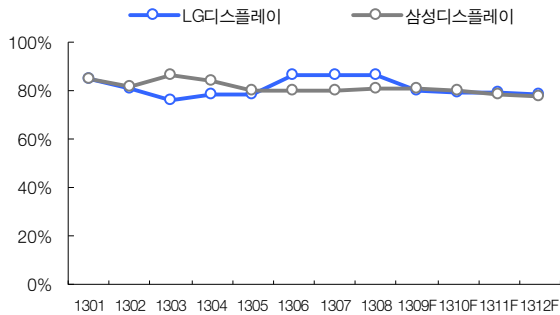
TFT-LCD 세대별 가동률 증감 전망 (1~3개월)



주 : 1M chg.(1312F-1311F), 2M chg.(1312F-1310F), 3M chg.(1312F-1309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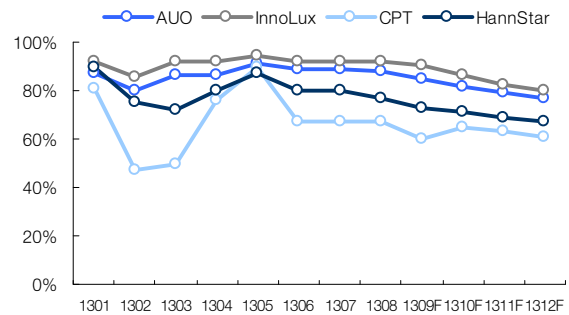
자료 : DisplaySearch, HMC투자증권

〈그림1〉 TFT-LCD 한국 업체 가동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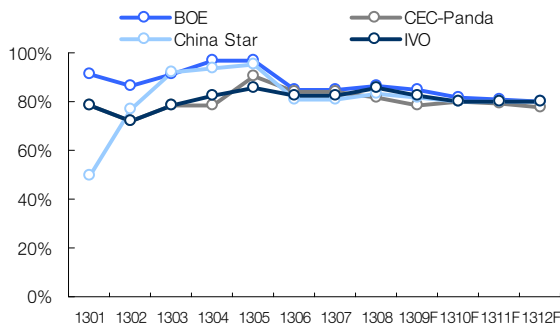
자료 : DisplaySearch, HMC투자증권

〈그림2〉 TFT-LCD 대만 업체 가동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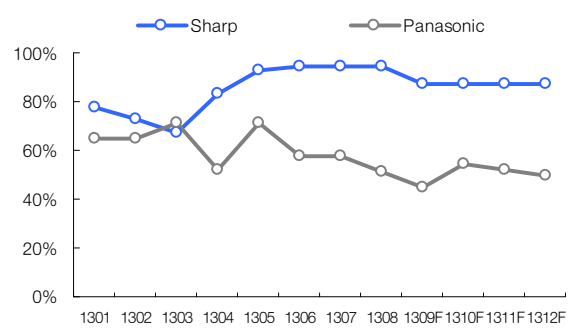
자료 : DisplaySearch, HMC투자증권

〈그림3〉 TFT-LCD 중국 업체 가동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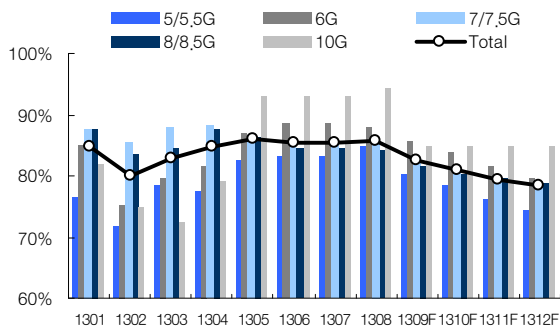
자료 : DisplaySearch, HMC투자증권

〈그림4〉 TFT-LCD 일본 업체 가동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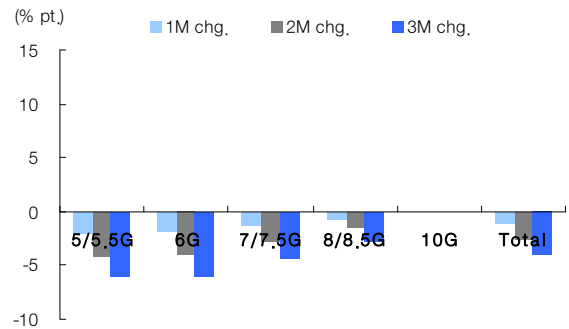
자료 : DisplaySearch, HMC투자증권

〈그림5〉 TFT-LCD 글로벌 가동률 추이 및 전망



자료 : DisplaySearch, HMC투자증권

〈그림6〉 TFT-LCD 세대별 가동률 증감 전망 (1~3M)



주 : 1M chg.(1312F-1311F), 2M chg.(1312F-1310F), 3M chg.(1312F-1309F)

자료 : DisplaySearch, HMC투자증권

※ TFT-LCD 월별 가동률 추이 및 전망

〈표1〉 TFT-LCD 업체별 가동률

(%, %pt.)

패널업체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F	1310F	1311F	1312F	QoQ (%pt.)
AUO	87%	80%	86%	87%	92%	89%	89%	88%	85%	82%	79%	77%	-8.1
BOE	91%	86%	92%	97%	97%	85%	85%	86%	84%	82%	81%	80%	-4.3
CEC-Panda	78%	72%	78%	78%	90%	84%	84%	82%	78%	80%	79%	78%	-0.3
ChinaStar	50%	77%	92%	93%	95%	81%	81%	83%	82%	80%	80%	80%	-1.5
CPT	81%	47%	50%	76%	90%	67%	67%	67%	60%	65%	63%	61%	1.0
HannStar	90%	75%	72%	80%	87%	80%	80%	77%	73%	71%	69%	67%	-6.0
InnoLux	92%	85%	92%	92%	95%	92%	92%	92%	90%	86%	83%	80%	-10.4
IVO	78%	72%	78%	83%	85%	83%	83%	85%	83%	80%	80%	80%	-2.6
LG디스플레이	85%	81%	76%	79%	78%	86%	86%	87%	80%	79%	79%	79%	-1.1
Panasonic	65%	65%	71%	52%	71%	57%	57%	51%	45%	54%	52%	50%	5.3
삼성디스플레이	85%	81%	87%	84%	80%	80%	80%	81%	81%	80%	79%	78%	-2.9
Sharp	78%	73%	67%	83%	93%	95%	95%	95%	87%	87%	87%	87%	0.0

주 : QoQ 증감값 산출에 쓰인 가동률은 기간 말 값 기준

자료: DisplaySearch, HMC투자증권

〈표2〉 글로벌 TFT-LCD Fab 세대별 가동률

(%, %pt.)

세대 구분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F	1310F	1311F	1312F	QoQ (%pt.)
5/5.5G	76%	72%	78%	78%	82%	83%	83%	85%	80%	78%	76%	74%	-6.1
6G	85%	75%	80%	82%	87%	89%	89%	88%	86%	84%	82%	80%	-6.0
7/7.5G	88%	86%	88%	88%	87%	85%	85%	86%	82%	81%	79%	78%	-4.4
8/8.5G	88%	83%	85%	88%	86%	84%	84%	84%	82%	80%	80%	79%	-2.7
10G	82%	75%	72%	79%	93%	93%	93%	94%	85%	85%	85%	85%	0.0
Total	85%	80%	83%	85%	86%	85%	85%	86%	82%	81%	79%	78%	-4.1

주 : QoQ 증감값 산출에 쓰인 가동률은 기간 말 값 기준

자료: DisplaySearch, HMC투자증권

▶ Compliance Not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추천일 현재 해당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김영우, 김윤규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투자의견 분류

- ▶ 업종 투자의견 분류 HMC투자증권의 업종투자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업종 펀더멘털과 업종주가의 전망을 의미함.
 - OV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 NEUTRAL :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 UND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 ▶ HMC투자증권의 종목투자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상대수익률을 의미함.
 - BUY :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상
 - HOLD :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15%~+15%P 이내
 - SELL :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하

- 본 조사항목은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